



정읍시청 앞 커피차, 익명 시민이 감사의 마음 전해

10일 아침 출근길, 정읍시청 정문 한쪽에 세워진 커피차가 눈길을 끌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커피차에 적힌 따뜻한 메시지를 읽은 공무원들은 뜻밖의 선물에 미소를 지었다. 매년 겨울 아침이면 도로 위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던 공무원들에게, 익명의 시민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커피차 옆 팜플렛에는 “매년 겨울 제설작업에 힘쓰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또한, 정읍시가 알뜰한 살림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많은 시민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감사도 함께 담겨 있었다. 단순히 커피만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레몬티, 아이스티 등 다양한 음료가 마련돼 있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었다.

이를 본 한 공무원은 “제설작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는데, 시민께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동했다”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응원으로 알고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읽은 시민의 작은 응원이, 정읍시청 공무원들의 하루를 훈훈하게 물들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운봉읍, 28일까지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권포마을과 엄계마을의 경로당에서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 치매 예방,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 운동, 치아 관리 등 다양한 건강 교육을 포함하며, 운봉읍 보건지소 및 진료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 치매 예방 교육 등 추가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운봉읍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을 선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풍동 지사협,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식사 봉사 진행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호길)가 10일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사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배식과 설거지, 식당 환경 정리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봉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민 중심 복지정책들 연이어 제안 ‘호평’

김제시의회 문순자 의원,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



김제시의회 문순자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9대 후반기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문 의원은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연이어 제안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취약계층부터 어르신, 치매환자 가족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종합 복지정책을 제안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노인 복지 개선, 치매 친화 도시 구축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의원이 제안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병원에 혼자 갈 수 없는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심동행 매니저’가 병원 방문을 동행하는 이 서비스는 타 지자체에서 97%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목욕권 지원 사업’ 개선안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실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

했다. 현재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목욕탕 이용권이 이·미용실 및 안경 구입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김제사랑카드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 제안은 어르신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김제시 치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문 의원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정책연구회’의 대표 의원으로 치매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에도 착수했다. 이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문 의원의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문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경직된 소득 산정 방식으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강화 △생활 실태를 반영한 복지 지원 기준 마련 △기부 재원을 활용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순자 의원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부안군 축산과·고창읍, 고항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동참

부안군은 군 축산과와 고창군 고창읍 직원 총 32명이 고항사랑기부금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양 지자체 간의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각 160만원의 고항사랑기부금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이들 두 부서는 상호기부를 통해 더 많은 협력과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며 상호 유대감을 높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권오범 축산과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한 두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항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 금액은 연간 2000만원까지이며 고항사랑e에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 영업점 방문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군은 답례품으로 부안한돈, 쌀, 오디, 제철 수산물 등 100여종의 농·수·축산품과 부안사랑상품권, 요트체험, 별초대행 서비스, 부안 고려청자 찻잔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도 사회서비스원, 장수군에 생필품 80박스 기탁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에서 생필품 80박스(800만원 상당)를 보훈단체에 전달해 달라고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탁품은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회장 김정안)에서 후원받은 물품을 기탁한 것으로 삼푸, 찻숯, 참기름 등 7개 품목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최훈식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물품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기탁받은 물품은 상이군경회, 전불군경미망인회 등 보훈단체 7개소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이며, 평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장수=고광호 기자

고창경찰서, 대한노인회 교통안전교육 진행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는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서 700명 대상으로 2025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에 나섰다.

고창군 대한노인회는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어린이 등·하교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및 학교 주변 순찰 활동이 주된 역할이다.

고창경찰청은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교통사고사고 사례를 들어 안전하게 운행하는 법등을 교육하고 면회적성 검사 방법, 면허 자진 반납 홍보, 알기 쉬운 회전차로로 운행 방법 등을 안내하여 고령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위주로 교육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단 위촉

전북 거주 외국인 주민 17명,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정책 제언 활동 진행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9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회의실에서 ‘전북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단’은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11개국 출신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인 거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단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각 국가별 커뮤니티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리더들이 참석해 전북에서의 생활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리더단의 활동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온라인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센터의 주요 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제언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국가별 소모임을 운영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외국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